



폴란드

경기회복 정책을 놓고 정부와 통화정책위원회 갈등

2001년부터 경기침체

폴란드의 경제성장률은 1997년 6.8%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점차 하락하기 시작하여 1999년 4.1%, 2000년 4.0%를 기록하였다. 특히, 1990년대 후반부터 정부가 물가상승 억제와 경상수지 적자 축소를 위해 긴축통화정책을 시행한 결과, 2001년에는 내수 위축과 이에 따른 기업수익 하락, 높은 이자율로 인한 투자 위축 등이 겹치면서 경제성장률이 1.0%로 급격히 하락하였다. 2002년에도 이러한 영향이 계속되면서 경제성장률은 1.4%에 머문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2002년 후반부터 민간소비와 수출이 증가하여 경기가 조금씩 회복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¹⁾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997년 14.9%의 높은 수준에서 1998년 11.8%, 1999년 7.3%로 하락했다 2000년 10.1%로 다시 상승하였다. 그러나 긴축 통화정책의 지속, 내수 부진, 국제유가 하락, 농산물 가격 안정 등에 힘입어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001년 5.5%, 2002년 1.9%를 기록하는 등 물가불안은 급격히 진정되고 있다.

정부와 통화정책위원회 갈등

현재 동국 정부는 실업률 감소와 경기회복에 경제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확대 재정정책이 용이한 방법이나, 재정적자의 누적²⁾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 1) 폴란드 중앙통계국에 의하면, 2002년 분기별 성장률은 1사분기 0.4%, 2사분기 0.8%, 3사분기 1.6%, 4사분기 2.1%를 기록했고, 2003년 1사분기 2.1% 이상으로 추정되어 상승세로 전환된 것으로 분석됨.
- 2) 동국 정부는 EU 가입과 함께 유럽통화동맹(EMU) 가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동국의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가입조건인 마스트리히트 조약 기준을 이미 초과하고 있어, EMU 가입 조건의 충족을 위해 재정적자 규모를 축소시켜 동 비율을 개선해야 하는 입장임.

〈표〉 폴란드의 주요 경제지표

단위: %, 백만 달러

구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e
경제성장률	4.1	4.0	1.0	1.4
환율(달러당, 연말기준)	4.1483	4.1432	3.9863	3.8388
소비자물가상승률	7.3	10.1	5.5	1.9
재정수지 / GDP	-0.8	0.3	-3.9	-4.6
경상수지	-12,487	-9,998	-5,357	-6,700
경상수지 / GDP	-8.1	-6.3	-3.0	-3.7
상품수지	-15,072	-12,308	-7,660	-10,304
수출	30,060	35,902	41,664	32,983
수입	45,132	48,210	49,324	43,287
외환보유액	26,107	26,320	25,162	27,959

자료: IMF, IFS 각호 및 EIU, Country Report 각호.

재정의 확대에 상당한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중앙은행(NBP) 내 통화정책위원회(Monetary Policy Committee)에 대해 금리인하 압박을 지속해 왔다. 그러나 1999년부터 물가상승 억제를 목표로 긴축 통화정책을 유지해 온 중앙은행은 정부의 재정정책 목표 달성을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기존의 긴축 통화정책 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통화정책위원회, 물가상승 억제에 초점

1998년부터 통화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통화정책위원회는 중앙은행 총재와 9명의 이브 이시트(최외 사외 주야오해 초게가 각각 3명씩 선출)로 구성되어 있으며, 물가상승률 조절을 위해 통화정책 방향을 통화량 조절에서 이자율 목표제로 전환하였다. 설립 당시 통화정책위원회의 최우선 목표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설립 직전연도인 1997년의 15.1%에서 2003년까지 4%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었다.

설립 후 첫 목표연도인 1999년의 물가상승률은 목표치인 8~8.5%를 초과한

9.8%, 2000년에는 목표치 5.4~6.8%를 상회한 8.5%를 기록하여 계속 물가관리에 실패하였다. 그러나 2001년 물가상승률이 목표치 6~8%를 크게 하회한 3.6%를 기록하여 물가관리에 여유를 갖게 되었고, 2002년에는 연초 목표치를 4~6%로 잡았으나 6월에 2~4%로 하향 수정하였으며 결국 1.9%를 기록하였다. 현재 동 위원회는 2003년 물가상승률을 전년 수정치와 동일한 2~4%로 잡고 있다.

한편, 환율정책은 정부와 중앙은행이 협의하여 결정하며, 정부가 자국 통화인 즐로티(Zloty)화에 대한 정책을 변경하려면 통화정책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과거 즐로티화가 유로화와 미 달러화에 대해 15% 내외에서 자유롭게 변동토록 되어 있던 환율제도는 2000년 4월 이후 중앙은행이 외환시장에 개입하지 않는 완전자유 변동 환율제도로 변경되었다.

정부, 고이자율 및 외환시장 불개입 정책 비판

동국 정부는 IMF의 권고사항이었던 물가상승률 목표제와 자유변동 환율정책에

대해 많은 비판을 하고 있다. 동국 정부는 통화정책위원회에 대해 1999년 이후 과도하게 긴축적인 통화정책을 고수하였고, 2001~02년 중에도 너무 높은 수준의 이자율을 고수하는 정책을 장기간 사용하였다고 비판하고 있다.

통화정책위원회가 이자율을 낮추기 시작한 시기로부터 18개월 후인 2002년 9월의 물가상승률(전년동기 대비)이 사상 최저치인 1.3%임에도 불구하고 주요 공식 이자율이 8%에 달할 정도로 폴란드의 실질이자율 수준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또한, 동국 정부는 통화정책위원회의 외환시장에 대한 불개입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하고 있다. 과거 수년 간 경쟁국인 체코, 헝가리 등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동국의 이자율은 외국자본 유입에는 기여하였으나, 즐로티貨 환율을 강제로 이끌어 수출경쟁력을 약화시켰다.

정부, 통화정책위원회에 압력

고이자율 정책과 환율강세 지속 현상으로 인한 정부와 중앙은행간의 경제정책 갈등은 연대선거행동당(AWS)이 집권했던 이전 정부 시절부터 있었으나, 2001년 10월에 출범한 현 민주좌익동맹(SLD) 정부가 들어서면서 더 한층 악화되었다. 밀러(Leszek Miller) 現총리와 내각의 일부 각료들은 고이자율 정책 유지에 대해 통화정책위원회를 계속 비판하고 있으며, 민주좌익동맹(SLD)과 연합당인 농민당(PSL)의 총재는 통화정책위원회의 독립성을 약화시키라는 압력을 가하고 있다.

양당 총재들은 통화정책위원회의 위원

수를 증가시키고 그 위원회의 목적을 확대시키기 위한 법안을 제출한 바 있으나, 이 같은 법안은 유럽통화동맹(EMU) 가입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크바스니에프스키(Aleksander Kwasniewski)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하원에서 부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밀러 총리는 이 법안을 통화정책위원회에 대한 압력에 매우 유용한 방법으로 간주하고 있다.

통화정책위원회, 고이자율 정책 유지 주장

통화정책위원회는 정부가 재정적자 규모를 줄이지 못하기 때문에 고이자율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재정적자 때문에 정부 채권을 발행하게 되고, 동 채권을 외국인투자자가 구입함으로써 즐로티貨가 강세가 되어 수입비중이 높은 동국의 물가안정에 도움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정적자는 폴란드의 역대 재무장관에게 고민거리였는데, 특히 2001년에는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 낮아지고 이전 행정부 시절의 재정지출이 제대로 통제되지 못했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했다. 2001년에는 재정적자 목표치를 도중에 상향조정하였고, 2002년 예상치도 급격히 상향조정한 바 있다.

폴란드에서는 정부지출 감축이 재무장관의 권한 밖에 있어, 재정관리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공공 부문 재정적자는 중앙정부(state) 재정적자에 사회보장체계, 의료체계, 실업보험체계에 지원하고 있는 반(半)자치기구 및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지원분을 포함한다. 그런데 현재 재무장관이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중앙정부 재정에 한정되어 있고, 중앙정부 재정에 관한 정보는 월단위로 공식적으로 집계되지만 지방정부 재정에 관한 정보는 그렇지 않다. 결국, 통화정책위원회는 정부의 재정수지 관리능력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으며, 이것이 긴축 통화정책을 고수하는 논리가 되고 있다.

前재무장관, 재정적자 억제책 시행

2001년 10월 정권 교체로 새로 취임한 벨카(Belka) 재무장관은 2001년 재정적자 규모를 당초 205억 즐로티에서 330억 즐로티로 수정하는 대신, 긴급 지출통제를 실시하여 실적치는 목표치를 하회하게 되었다. 벨카 장관은 2002년에도 목표치를 400억 즐로티로 제한하고 긴축재정 정책을 취하여 매월 실적치를 계속 목표 이하

로 유지하고 있었으나 2002년 7월 중도 사임하였고, 새로이 콜로드코(Kolodko)가 재무부 장관에 임명되었다.

콜로드코가 임명되자 기존 정책이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현재까지 벨카 前장관의 정책기조가 유지되고 있다. 콜로드코 장관은 공식적으로 통화정책위원회의 독립성을 지지하고 있으며, 중기에 정부지출을 매년 1% 증가시킨다는 벨카 前장관의 정책기조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또한 그는 2003년에는 재정적자 규모를 소폭 줄일 계획이며, 2004~05년 중에는 대폭 줄일 계획이다. 그러나, 2002년 9월 중반까지는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재무상태를 완화해 줄 경제회복 정책 도입에 집중하고 있다.

【권 유 철】